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Krc-경북 농업인 단체장 현장 간담회 개최

윤 장세홍 기자 | 승인 2025.10.24 20:34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지난 23일 농어촌공사 영천지사 회의실 및 금호읍에 위치한 지역특화 스마트팜 온실에서 서선희 경북지역본부장, 오갑진 영천지사장, 한국후계농업경영인·한국쌀전업농·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의 경북지역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rc(한국농어촌공사)-경북 농업인 단체장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업분야 미래산업 육성 등 신정부 농정방향에 부응하고 농업인 의견 수렴과 정책 공감대 형성, 지역 농업인단체와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공사 농지은행사업, 기존농과 청년창업농 지원, 농촌 지역의 인구소멸, 농촌용수 공급 및 지하수댐 설치, 스마트팜 등 농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개선방안을 토론했으며, 영천시 소재 스마트팜을 방문해 청년농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단체장들의 조언과 함께 미래농업의 추진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북도 농업대전환에 관한 의견 교환과 승계농 육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농업인들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선희 경북지역본부장은 "농업 현장의 요구에 발맞춰 실질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경북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세홍 기자